

Stretch, 텐실리카 익스텐사 LX 프로세서 및 HiFi2 오디오 엔진 선택

글 | 이공홀 기자(leekh@semiconnet.co.kr)

미국 캘리포니아 쉰니베일에 소재한 스트레치가 자사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컴피규러블 프로세서 사용을 위해 텐실리카의 익스텐사 LX 프로세서와 HiFi2 오디오 엔진을 라이선스했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치 S6000 제품군의 프로세서는 오디오/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하고 있으며 듀얼 이슈, 익스텐사 LX 프로세서와 함께 결합된 스트레치의 2세대 ISEF (Instruction Set Extension Fabric)의 VLIW 구성

을 이용해 뛰어난 비디오 프로세싱 성능을 실현한다.

스트레치의 크랙 리틀 (Craig Lytle) 사장 겸 CEO는 “실시간으로 텐실리카 명령 익스텐션의 개발을 통해 익스텐사 프로세서를 위한 타깃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화하는 역량은 오늘날 까다로운 오디오/비디오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혁신적인 성능 레벨 달성의 핵심 요소이다. 우리는 새로운 S6000 제품군에 텐실리카

와의 협력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이 플랫폼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성능 레벨을 달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S6000 제품군에 사용된 2세대 ISEF는 익스텐션 패브릭(Extension Fabric)내에서 로컬 데이터 스트리지를 위한 64KB의 임베디드 RAM를 포함하고 있다. 임베디드 RAM(IRAM)에 대한 전용 DMA 채널은 새로운 듀얼 이슈 VLIW 익스텐사 LX 프로세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장한다. 익스텐사 LX와 새로운 ISEF의 결합은 스트레치 프로세서의 이전 세대 성능보다 3배 이상의 성능을 실현한다. 오디오

프로세싱의 경우, 스트레치 S6000 제품군은 텐실리카의 HiFi 2 오디오 엔진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 C/C++ 소스 코드를 이용한 익스텐사 프로세서를 프로그래밍하는 성능은 HiFi2 오디오 엔진으로 이용되는 가속과 함께 S6000 제품군에 오늘날 시스템에서 필요한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의 최적 결합을 제공한다.

스트레치의 로버트 배첼러(Robert Beachler) 마케팅 부사장은 “오디오는 점점 보급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내장형 멀티포맷 오디오를 갖춘 프로세서에 관심을 보이는 수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성능 레벨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오디오 포맷 19개를 지원하기 위해 텐실리카의 HiFi2 오디오 엔진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익스텐사 HiFi2오디오 엔진은 24-비트 오디오 프로세싱을 이용하고 있으며, 오늘 사용되는 일반적인 16-비트 오디오 프로세서에 장점을 제공한다. 이 엔진은 압축 및 해제 알고리즘에서 중간 계산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밀도 증가 때문에 압축 파일의 뛰어난 음질을 제공한다.

텐실리카의 스티브 로디(Steve Roddy) 마케팅 부사장은 “미래 제품에 익스텐사 HiFi2 오디오 엔진을 임베디드함으로써, 스트레치는 고객들이 고품질 오디오를 쉽고 힘들이지 않게 설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면서 “스트레치의 소프트웨어 컴피규러블 프로세서 칩은 맞춤형 칩 설계의 비용과 시간에 따른 조건을 제거하며,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상 깊은 가격 성능 레벨을 실현한다”라고 말했다. 이 제품은 완벽하게 프로그램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 오디오 표준들이 동일 하드웨어에서 동작할 수 있다. 텐실리카는 스트레치가 다음을 포함해 고객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익스텐사 HiFi2 오디오 엔진을 위한 19개의 오디오를 비롯해 스피치 인코더 및 디코더 패키지를 제공한다. **SN**



스트레치의 크랙 리틀(Craig Lytle) 사장 겸 CEO